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

황혜영^{*}, 전열어¹, 허정¹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the Empathy and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

Hyw-young Hwang^{*}, Yeol-eo chyn¹, Jung Hur¹
¹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다문화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된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 연구이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13주간의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강 전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t-test, ANOVA 분석과 사후검증은 Scheffe로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감능력은 연령이 어릴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문화 태도는 적극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향후 교과과정 내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이 증가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검증과 효과성의 확인이 필요하며, 효과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multicultural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the multi-culture-understanding subject. A 13-week program aimed at understanding multi-cultural aspects was given to 110 freshmen, who were taking the subject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alysis by a paired t-test using ANOVA of SPSS 18.0 and posteriori tests by Scheffe were performed. Through this subject, the nursing students showed improved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The increase in emphatic ability showed a sligh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lower) and the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while the attitude had small distinction in areas, such as activeness and openness. The multi-culture-understanding subject has a positive effect in attitude and emphatic ability. In the future, there must be ver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program because it improves the multicultural capability.

Key Words : empathy ability, multicultural attitud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하면서 단일문화라는 고정관념을 고수해 왔으나 인적교류, 경제적 교류 및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탈국가 현상이 가속

화 되어 급속하게 다문화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전체인구의 3.1%를 차지하면서 인구 100명당 3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적 구성원이 증가는 인구학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동안 단일문화를 중시하였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불가피

본 논문은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Hwang(Gimcheon Univ.)

Tel: +82-054-420-4237 email: hhy4237@gimcheon.ac.kr

Received August 1, 2014

Revised (1st October 17, 2014, 2nd October 21,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와 관련된 정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중심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다문화 센터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대상자 또는 다문화 대상자를 교육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관련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

한편 대학생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세계화의 변화속에서 다양한 각 나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여[3]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4]. 다양한 방법 중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은 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5], 다문화 수업을 수강한 이후 대학생들의 교류경험의 증가와 다문화관련 활동에 적극적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6]. 이처럼 다문화 교육으로 인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및 지식 등의 효과성이 증명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특히 대학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효과가 매우 크므로[7]. 다문화 사회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의 변화는 사회,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다양한 민족의 구성은 건강제공자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8]. 이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외국 이주민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하므로 간호 대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4]. 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국 문화와 타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2011년 기준 국내 간호학과 200여개 중 28개 학과가 다문화 관련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문화와 간호’, ‘국제간호(이해)’, ‘다문화 간호’, ‘다문화 이해’, ‘세계보건 의료와 간호전문직’, ‘글로벌 문화’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9].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목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간호학과로 연계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감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다문화태도가 함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자기중심적 사공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10]. 다문화태도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정한 행동양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주민은 새롭게 정착하곤 주류사회에 대해서, 주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내국인은 이주민에 대해서 상호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다문화태도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해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화 정체성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문화적 소양을 가르치는 등 다문화 관련 교과목에 대한 수업은 예비 간호사로서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이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강 후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이해 교과목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 교과목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 둘째, 다문화 이해 교과목 수강 전·후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1.3 용어정의

1.3.1 다문화 이해 교과목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호 대학생을 대상

으로 이론과 체험 및 특강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국가 내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개설된 교과목으로 2013년 2학기 G대학 간호학과 기초교양과목을 말한다.

1.3.2 공감능력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는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으로[12] 공감능력은 이러한 공감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은 [13]이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D)를 [14]가 재구성한 총 3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다문화태도

다문화란 많은 다른 문화가 서로 관련되거나 포함되는 것[15]을 말하며,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으로[12], 본 연구에서는 Munro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MMASQ) 18항목과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TMAS) 20항목, 그리고 Jibaja(2000) 및 그 동료들이 개발한 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 21항목을 기초로 [16]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태도에 관한 문항을 우리나라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적극성, 개방성, 거부감, 보수성의 4개 영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3주간의 다문화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대학 간호학과 1학년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수업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학생이다. 참여 학생의 모집은 간호학과 게시판을 이용하여 2013년 9월2일부터 7일간 공지하여 모집내용 등을 알렸으며, 연구 참여 제외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학기 중 1회 이상 결석한 학생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효과크기 .15로 설정하여 96명이 산출되었으며,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한 11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종료 시까지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13]의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6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2 다문화태도

[15]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태도에 관한 문항을 우리나라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내적 타당도 검증(Cronbach's $\alpha = .87$)과 척도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4개 영역(거부감, 적극성, 보수성, 개방성) 20개 문항으로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무기명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도중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자료 처리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연구대상자가 1부, 연구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에 의한 편중발생을 고려하여 연구보조자가 시행하였으며, 교과목 수업 시작 전과 종료된 시점에서 총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 다문화이해 교과목 내용과 구성

다문화이해 교과목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 총 13주간 주당 3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교과 내용과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17]에서 제시한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 개발연구와 [18]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강의는 다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인식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다문화 개념 정립, 다문화 정책과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재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였다. 체험활동은 강의 중 병행하거나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공감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기인식, 타인과 소통,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 이해, 이주자의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차는 수업관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과목에 대해 안내하였고, 2주-5주차까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식습득과 인식을 위한 교재 중심 강의와 관련 영상을 시청하였고, 다문화 관련 주제에 대해 그룹토의 후 발표를 통해 학생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6주차-11주차 중 2주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그룹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4주 동안은 G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이주민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인이 자국에 대한 역사, 문화, 경험 등에 대한 강의와 학생들과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였다. 마지막 2주는(12주-13주) 다문화 수용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활동을 위해 5-6명으로 구성된 그룹끼리 '모두에게 공평한 집단 구성하기'와 사회적 거리감 측정을 위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해 그룹 토의 후 발표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6.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6.2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다문

화태도에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2.6.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차이검증을 위해 사후검사에서 사전점수 차이에 대해 분석한 후 변수에 따라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로 하였다.

2.7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와 승인(과제번호 P01-201308-SB-02)을 받은 후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참여와 불참으로 인한 이점과 불이익, 자료처리,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연구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고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사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은 18.93세±.69로 '20세 미만'이 89.1%(98명)로 대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 한 학생들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53.6%(59명)로 반수가 조금 넘었으며, '없다'는 46.4%(51명)로 비슷하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 중 '기독교'가 38.2%(4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 12.7%(14명), '천주교' 2.7%(3명)의 순이었다. 외국방문 경험은 '없다'가 62.7%(69명)이 응답하여 반수 이상이 외국을 다녀온 경험이 없었으며, 외국을 다녀온 37.3%(41명) 중 '1회'가 73.1%(30명), '2회' 14.6%(6명), '3회' 4.9%(2명), '4-7회'가 7.3%(3명)로 조사되었다. 외국 거주 경험에 대해서는 101명(91.8%)이 없었으며,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9명(8.2%)에 불과하였다. 그 중 77.8%(7명)는 '1년 미만'이고 '1년 이상'거주한 학생은 22.2%(2명)이었다. 외국인 대상 봉사경험은 9.1%(10명)에 불과하여 대다수(90.9%)가 봉사경험이 없었다. 봉사횟수는 평균 0.37회±1.83이었다. 외국인 친구(친지)의 유

무는 ‘없다’가 63.6%(70명)이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4%(40명)로 평균 0.9±1.99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가 83.6%(92명)로 많은 수가 교육경험이 없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16.4%(18명) 중 50%(9명)는 ‘고등학교’로 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16.8%(3명), ‘초·중·고교’에서 모두 받은 학생은 11.1%(2명)이었다.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73.7%(81명)가 ‘조금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14.5%(16명), ‘잘 할 수 없다’는 11.8%(13명)가 응답하였다.

3.2 다문화이해 교과목 실시 전·후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차이

다문화 이해 교과목 실시 전·후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시작하기 이전의 공감능력은 총점에 대한 평균이 10.63±9.92에서 수업 종료 후 108.50±11.11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1.529, p>.05). 한편 다문화태도에 대해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교과목 시작 전과 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성’은 21.69±3.39에서 22.62±2.89로 증가하였고, ‘개방성’은 18.00±2.48에서 18.88±2.13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99, p<.05, t=-2.793, p<.05). 반면 ‘거부감’과 ‘보수성’은 각각 20.72±4.62에서 20.71±3.79로, 17.76±2.11에서 17.33±2.10으로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지하지 않았다(t= .016, p >.05, t=1.488, p > .0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이해 실시 전·후의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한 공감능력의 변화 정도는 ‘20세 미만’에서 3.38±15.37로 증가하였으나 ‘20세 이상’은 -7.75±14.05로 공감능력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88, p<.05). 이를 통해 연령이 어릴수록 공감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general characteristics		N(%)	M±SD	
age	under 20	98(89.1)	18.93±.69	
	over 20	12(10.9)		
religion	yes	59(53.6)		
	no	51(46.4)		
experience in visiting countries abroad	yes	41(37.3)		
	no	69(62.7)		
frequency in visiting foreign countries	once	30(73.1)	.60±1.07	
	twice	6(14.6)		
	three times	2(4.9)		
	4-7 times	3(7.3)		
experience in living abroad	yes	under a year	7(6.4)	101(91.8)
		over a year	2(1.8)	
	no			
experience in volunteer work to foreigners	yes	10(9.1)	.37±1.83	
	no	100(90.9)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yes	40(36.4)	.90±1.99	
	no	70(63.6)		
experience in other subjects with multicultural	yes	18(16.4)		
	no	92(83.6)		
period of learning the subject	primary school	3(16.8)		
	secondary school	1(5.5)		
	high school	9(50.0)		
	primary&secondary	1(5.5)		
	all three	2(11.1)		
	no reply	2(11.1)		
linguistic skills	little	81(73.7)		
	available in communication	16(14.5)		
	none	13(11.8)		

[Table 2] The differ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Aspects		Pre	Post	t	p
		M±SD	M±SD		
emphatic ability		106.32± 9.92	108.50±11.11	-1.529	.128
multicultural attitude	repulsion	20.72±4.62	20.71±3.79	.016	.987
	activeness	21.69±3.39	22.62±2.89	-2.199	.029*
	conservative	17.76±2.11	17.33±2.10	1.488	.135
	openness	18.00±2.48	18.88±2.13	-2.793	.006*
	total	78.19±9.14	79.56±7.80	-1.198	.232

p<0.5

[Table 3] The effect by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attitude

general characteristics		emphatic ability			multicultural attitude		
		M±SD (before-after)	t/F	p	M±SD (before-after)	t/F	p
Age	under 20	3.38±15.37	2.388	.019*	.04± .62	-1.070	.287
	over 20	-7.75±14.05			.25± .62		
experience in living abroad	yes	5.00±16.00	.567	.572	-.03± .48	-.539	.591
	no	1.92±15.59			.07± .63		
experience in visiting countries abroad	yes	3.73±14.43	.808	.421	-.00± .54	-.907	.367
	no	1.24±16.24			.11± .66		
experience in volunteer work to foreigners	yes	6.40±12.71	.899	.370	.12± .50	.273	.786
	no	1.75±15.82			.06± .63		
religion	yes	4.03±15.24	1.353	.179	.06± .67	.015	.988
	no	.01±15.82			.06± .55		
existence of foreign friends	yes	6.02±14.55	-1.987	.049*	.12± .55	.125	.446
	no	-.02±15.81			.03± .65		
linguistic skills	slight	3.44±15.88	1.061	.350	.08± .60	.118	.889
	available in communication	-.68±16.04			.05± .64		
	unable	-2.23±12.50			-.00± .72		
experience in other subjects with multiculturalure	yes	2.22±14.26	.015	.988	.06± .62	.979	.956
	no	2.16±15.89			.07± .62		

p<0.5

외국인 친구유무에 따른 공감능력의 변화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6.02±14.55)가 없는 경우(-.02±15.81)보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해 공감능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87, p<.05). 반면 외국거주경험, 외국방문경험, 외국인 대상 봉사경험,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5.00±16.00, 3.73±14.43, 6.40±12.71, 2.22±14.26)가 없을 때(1.92±15.59, 1.24±16.24, 1.75±15.82, 2.16±15.89) 보다 공감능력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567, p>.05, t=.808, p>.05, t=.899, p>.05, t=.015, p>.05). 또한 외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경우(-2.23±12.50) 공감능력이 감소하였고, 조금할 수 있을 때에는 (3.44±15.88)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061, p>.0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20세만'(0.04± .62)에서 보다 '20세 이상'(25± .62)에서 다문화태도의 변화정도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70, p>.05). 또한, 외국거주경험, 외국방문경험, 외국인대상 봉사경험, 다문화 관련 수업경험, 종교유무, 외국인친구유무, 외국어구사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539, p>.05, t=-.907, p>.05, t=.273, p>.05, t=.979, p>.05, t=.015, p>.05, t=.125, p>.05, F=.118, p>.05).

4. 논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화 관련된 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의료서비스는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2012년 외국인 질환환자수가 2010년 대비 49.5%가 증가하는 등[19]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들은 의료인들이 외국인 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다[20]. 또한 국내 의료인들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양상과 정도가 일반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 대학생들이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국내 다문화 관련 연구로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특정집단(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인식과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와[4,22] 간호학과 전 학년으로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규명한 [23]의 서술적 조사연구, [18]이 1학년을 대상으로 11주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전부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과 다문화태도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간호학적 수준에 따라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과정의 계획과 실행[24]이 가능하여 미국에서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교과목이 전공과목과 통합되어 교과과정내에서 운영되고[25]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13주간의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업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1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공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규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 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추가될 때 공감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감점수를 평균 사전 10.6점과 사후 108.50을 5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각각 3.41점과 3.48의 결과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한 [22]과[23]의 3.5점, 3.51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현재 간호대학생들의 공감수준이 중간 정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사의 공감능력이 환자의 만족을 높이고 신뢰로 이어지므로[26] 전인

간호를 수행해야 할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이해 교과목 등의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t=2.388, p<.05$),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t=-1.987, p<.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의 연령별 다문화 인식현황에서 20대 이하와 30대가 50대와 60대 보다 다문화 인정태도를 보인 것[27]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젊은층에서 최근의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대중매체 노출 등으로 인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연령이 어릴수록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상대적으로 적어 글로벌 사회로 인한 다양한 문화의 접근 가능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향상된 ($t=-1.987, p<.05$)것은 [22]의 외국인과 교류경험이 있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공감능력이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을 통해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문화적 민감성에 공감정도가 1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23]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많은 대학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외국 유학생들과 문화 및 언어 교류를 통해 다국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외국거주 경험, 외국방문 경험, 외국인 대상 봉사경험, 다문화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교과목 수강 후 모두 증가하여 [23]의 문화적 민감성 정도가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해외여행 경험, 해외생활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들은 대부분 외국인과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활동들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통계적 유의성을 없었으나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어 외국어 능숙도가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유의한 결과[28]와 유사하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외국인과의 친구 등의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

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태도는 다문화이해 교과목 수업 전(78.19±9.17)보다 수업 후(79.56±7.80)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t=-2.793, p<.05$) [15]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태도 4가지 영역 중 적극성($t=-2.199, p<.05$)과 개방성($t=-2.793,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극성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배우기,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웃에 살기, 같은 직장 다니기, 한국사회 적응 돕기 등의 내용이다. 개방성은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며, 다문화이해가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의 대증매체 노출이 개방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다문화 관련 지식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와 발표 및 다른 나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강의와 체험의 경험들이 적극성과 개방성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다문화 이해 교과목 실시 전·후에 거부감과 보수성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 자리하기, 외국인 증가에 대한 두려움, 외국인과의 결혼,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부감과 또한 다른 문화 사람과의 접촉, 타문화에 대한 관심, 다문화 교육 필요성, 교과 과정에 다문화 내용 포함, 다문화에 대한 소양과 이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성이 13주간의 다문화이해 교과목만으로 거부감과 보수성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29]의 연구에서 다문화태도에 대한 인터뷰 분석결과 다인종, 다민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감소와 이주민의 강점을 발견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변화하여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 사람들과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면 다문화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에 대한 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교과목 수강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현재까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운영을 통한 다문화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로 비교가 불가능하나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외국거주 경

험, 외국방문 경험, 외국인 대상 봉사경험, 다문화관련 수업 경험 등이 있는 경우의 대상자 수가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어 대상자 수를 증가시킨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대학내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으나,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 진로태도성숙,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3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통한 대인관계 점수와 자존감의 향상[31]은 교과목 운영을 통한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역량과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 [17]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이해 교과목 교육을 통해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을 자신의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1학년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참여 내용을 학과 게시판에 공지하여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총 110명이 참여하였다. 13주로 구성된 교과내용은 다문화 지식 습득, 체험, 발표, 토론 및 특별강의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수업 시작 전과 학기 종료시점으로 2회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independent 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 교과목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이 증가하고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감능력은 연령이 어릴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문화태도는 적극성과 개방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생은 건강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이다. 증가하는 다국적 환자들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능력과 긍정적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어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수업 중에 시행되어 비교집단을 배정하여 시행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으며, 간호학 교과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검증과 효과성의 확인 및 효과성 지속에 대한 추후연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

- [1] http://www.mosp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vU6xr9g1Z1eAFCFzucefHiUM5E8uZQIIYuQONXkEmoxUuW8SW6TKtvPFTHLN5K.m.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14&nttId=42492, 2014.7.28
- [2] Lee Je Kyeong, Park Un Joo, Kim Hu Jung, Cho Young Joo, Woo Cheun Hee, The university student cultivate multicultural sensitivity module developed, Ministry of Culture. 2010.
- [3] Kim Min Kyeong,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Focusing on th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Korea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6), 945-96, 2010.
- [4] Kim Kyung Sook, Yu Mi,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Cultural Awareness of Immigrants for Marriage, Foreign Workers in Korean Nursing Students, Korea J Adult Nurs 24(5), 531-539, 2012.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2.24.5.531>
- [5] Park Sun-hee, Lee Ju-hee, Kim Eun-jin.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e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3-145, 2011.
- [6] Kang Jin-Gu, The study of Impact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by education of multicultura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studies. Cultur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 53-77, 2008.
- [7] Ciccejelli, T. and S. Cho. "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9(3), 370-381, 2007.
- [8] Reimann, J. O., Talavera, G. A., Salmon, M., Nunez, J. A., & Velasquez, R. J. Cultural competence among physicians treating Mexican Americans who have diabetes: A structur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59, 2195-2205, 2004.
- [9] Im Ae Jung, Dental Hygienis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Korea, 2011.
- [10] Haffman, ML.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OI: <http://dx.doi.org/10.1017/CBO9780511805851>
- [11] Bourhis, R. Y., G. Barrette., S. El-Geledi., and R. Schmidt Sr. "Acculturation Orientations and Social Relations between immigrant and host community memb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3), 443-467. 2009.
DOI: <http://dx.doi.org/10.1177/0022022108330988>
- [12]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2014.7.28
- [13] Davis MH.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C:Weserview Press. 1996.
- [14] Jeon Byung Sung, The Real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2003.
- [15]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ulticultural>. 2014.7.28
- [16] Hwang Sung dong, Lim Hyuk, Yoon Sung Hoo,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Korea Academy of Social Wealfare, 64(1), 125-150. 2012.
- [1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search of students cultivate multicultural sensitivity training modules develop, 2010
- [18] Peek Eun-Hee, Park, Chai-Soon,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90-696,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 [19]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71422&page=1. 2014.7.28
- [20] Lee Byoung sook, Oh Ick Keun, Lee Eun Mi,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of Korea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26-237, 2011.

[21] Nam Kyoung A, Jeong Geum Hee, Analysis of Prejudice Toward Foreigners by Nurses and Physicians in Korea,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3), 437-449,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437>

[22] Yang Sun Yi, Lim Hyo Nam, Lee Ju H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2), 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23] Oh Won Oak,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7(4), 222-229, 2011.
DOI: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4.222>

[24] Cuellar, N. G., Brennan, A. M., Vito, K., & Siantz, L.. Cultural competence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4(3), 143-149. 2008.

[25] Bagnardi, M, Bryant, L., & Colin, J.. Banks multicultural model: A framework for integrating multiculturalism into nursing curricula.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4), 234-239, 2008.
DOI: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9.01.010>

[26] Jeffrey, C. L. Empathy and competence.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7(7), 414-416, 2008.

[27] Woon Seok Suh.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ption on Age Groups, Multiculture & Peace , 4(1), 11-39. 2010.

[28] Park Hye Sook, Won Mi Soon, An Exploration of Variable Related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303-325, 2010.

[29] Park Sun Hee, Lee Ju Hee, Kim Eun-Jin.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Program on the Promotion of Culture Sensitiv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3-145, 2011.

[30] Kim Ji Yeon, Lee Young Soon, Im Dong Won, The effectiveness of "Career Searchin programs" deliverde as part of univers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Humanities, 28, 399-421, 2012.

[31] Hyun Mi Yeal, Park Eun Ok, The Effect of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J Korea Acad Soc Nur Edu 14(1), 5-11,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05>

황 혜 영(Hye-Young Hwang)

[정회원]



- 2003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정책, 정보

전 열 어(Yeol-eo Chyn)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정보, e-러닝

허 정(Jung Hur)

[정회원]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